

학교	한글	소피아 대학교	성명	한글	스텔라 플라데노바	생년월일	1995년 8월 4
	영문	Sofia University		영문	Stela Mladenova	학년	3학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지 못하거나 이해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자주 발생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진화하면서 많이 변했지만 사람들은 도저히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남의 감정이나 희망을 간과할 때가 무척 많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대물차게 대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가는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화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때때로라도 자기 소원, 희망이나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남의 감정을 고려해서 도와주고 보살피줘야 한다.

아시다시피 요즘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민 문제이다. 전갱터가 된 자기 나라를 떠나 유럽으로 물러온 난민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북가리아로 왔다. 그런데 다른 나라 문제로 피해를 입고 쫓겨 많은 북가리아 시민들이 난민들을 외면한다. 난민들을 이렇게 대물차게 대할 때 사회 분열도 심해지고 문화의 광범을 넘어서기도 점점 어려워진다. 그럼으로 우

학교	한글	소피아 대학교	성명	한글	스텔라 플라데노바	생년월일	1995년 8월 4
	영문	Sofia University		영문	Stela Madenova	학년	3학년

리 사회가 화목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게 된다.

지난해 난민 소용소에서 큰 폭동이
 발생했다. 외야하면 난민들이 불가리아
 시민들의 배움과 내쫓기를 더는 못
 견뎌기 때문이었다. 불가리아 사람들이
 배려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문화 차
 이, 사고 방식 차이, 개인 차이 등 등
 모든 차이를 인식하고 더그럽게 감싸하
 고 낙선 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난
 민을 도와주고 싶을 마음아 없는 불가
 리아인들이 너무 많아서 발생한 갈등이
 었다. 그런데 이 폭동 때문에 수많은 불
 가리아인들도 난민들도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갈등이 양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움을 필
 요하는 사감들이 무척 많다. 사회 주변
 부 집단인지 길에서 우연히 마주하는
 전혀 모르는 사감인지 친구나 가족분인
 지 우리가 배려심을 필요하는 사감들에게
 손을 내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 경제 위기 때문에 자기 친구, 물건,
 직장, 집까지 잃을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 사감들이 많아 가지고 방관하면

학교	한글	소피아 대학교	성명	한글	스텔라 므라데노바	생년월일	1995년 8월 4
	영문	Sofia University		영문	Stela Mladenova	학년	3학년

인 된다. 공자는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리 말라고 하셨다. 이
 말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본인도 어려울 때 는 손 내밀
 어 줄 사람이 없을 거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 공감해 주고 힘 달는 데 까지
 도움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 다 함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도 설계해 나간다. 수 천 년이 지나
 가도 변하지 않는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배려심, 포용력과 공감력을 발휘하
 고 자기 자신만 아니고 남에게도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 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사회가 완
 전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조금
 더 화목해지고 기쁘^질 것이다. 역사책의
 다음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우
 리에게 달려 있다. 평화, 행복과 배려의
 광이 펼쳐질지 갈등, 대립과 방관의 광
 이 펼쳐질지 각각 사람에게 달려 있다.